

# 일선학교 결핵관리 제언

글 김수인숙(인천계산고등학교 보건교사)

저는 인천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보건교사입니다. 그간 잊혀졌던 결핵이 최근 청소년층에서 많이 발병된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학교에서도 1명 있을까 말까 했던 결핵이 최근 3~4년 전부터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게다가 결핵균 양성인 학생, 중증인 학생이 발견되면서 작년에는 요치료자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특히 주로 고등학교 3학년에게서 발병되다보니 입시에 차질이 생길까봐 더욱더 걱정이 되고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간 학교에서 결핵관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느꼈던 점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니 학교에서 만큼은 결핵제로지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결핵협회에 바라는 점...

결핵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학교결핵검진도 이젠 변화의 바람이 불었으면 합니다. 결핵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학교결핵검진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판독은 타 기관에 비해서 정말 정확한 데 이에 반하여 검진방법은 구태 의연합니다.

## ● 결핵협회 주관 보건교육이 필요합니다.

“결핵이 뭐예요?”라고 묻는 학생들이 많은데 현혈하는 것처럼 검사 전에 미리 검진안내 포스터를 배부하여 학교 결핵검진일이 언제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검진할 때 기다리는 지루한 시간을 이용하여 검진차량 주위에 교육용 패널을 전시해주시고, 리플릿 등 교육 자료를 배부하여 결핵이 호흡기 전염병이라는 것만이라도 알고 검진을 받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 결핵검진용 차량을 늘려주셔서 검진을 1학기 내로 완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인천의 경우 1학기에는 주로 공업계 고등학교가, 2학기에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검진을 받고 있는데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2학기에 검진을 하다보니 유증상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3학년이 수시나 수능 시기에 맞물려 결핵감염자 관리가 어렵습니다.

● 결핵검진 학생 명부작성 방법을 변경 해주십시오.

먹지를 대고 명부를 써야하는데 움직이지 않게 용지상단을 집게로 잡는 등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학교에 있는 명렬표에 간찰번호를 적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모든 일이 컴퓨터로 처리되는 요즘 불편한 예전 방법을 고수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부기관에 바라는 점...

●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계속해서 결핵검진 의무대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타 시도는 어머신지 모르겠는데 인천은 2004년부터 2학년은 물론 3학년도 결핵검진 의무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모두 1년에 한번씩, 교직원들은 2년에 한번씩 결핵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결핵유병율이 제일 높은 3학년에 대한 결핵검진 의무대상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 결핵관리에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현재 결핵감염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보건 관리지침이나 전염병 관련법규 등에 자세한 지침이 없어서 등교중지 등 환자관리에 학부모, 관리자, 보건교사 간에 이견이 있고 각 학교 간에도 서로 다르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객담도말 양성인 경우 즉시 약을 복용하게 하고 약 2주간 격리시킨다.’ ‘균 음성이면 등교가능하다.’는 등의 지침이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 결핵관리 지침이 학교로 전달되어 업무에 적용하게 해주십시오.

● 결핵관련 예산을 많이 책정해 주십시오.

상기와 같은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결핵관련 예산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만, 금연, 성교육 등은 예산이 많아서 교육 자료도 많고 여러 가지 보건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결핵은 너무나 무관심 한 편입니다. 최근 결핵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따라서 타 사업처럼 결핵에도 관심을 많이 주시고 예산도 많이 책정해 주십시오.

● 결핵검진은 결핵협회에서, 결핵치료 및 관리는 보건소에서 받도록 의무화 했으면 합니다.

결핵협회 판독결과는 정말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은 것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결핵협회에서는 세 번이나 판독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 조카의 예를 들어보면 4년 전인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요정밀검사'로 시중에 있는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여 안심했지만 몇 개월 후 '기흉'이 되어 2번씩이나 입원했었습니다. 그때 시중병원에서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입원할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핵협회에서 내리는 진단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핵검진은 결핵협회에서, 결핵치료 및 관리는 결핵전문기관인 보건소에서 받도록 의무화 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일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결핵검진도 같이하고 있는데 결핵검진만큼은 결핵협회에서 1,2,3학년 모두가 다 같이 받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한 판독을 받을 수 있고 감염자관리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간담회, 결핵관련 연수 개최

일선에서 활동 중인 보건교사들의 목소리도 들어주십시오. 간담회나 연수 등을 통하여 일선학교 현황도 알아보시고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청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결핵관련 신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연수기회도 주셨으면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대한결핵협회, 보건소, 교육청, 학교 등이 서로 협조하여 학교만큼은 결핵 없는 청정지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ㄱ